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 정보의 투명화 필요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외제차 등록대수와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 간의 FTA 체결로 외제차 증가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자동차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외제차 부품정보 제공의무 실효성 제고 등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외제차 등록대수와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외제차 등록대수는 74만 7천여 대로 총 등록대수의 4% 미만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20%p 증가한 것임.
 - 동기간 국산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90.2%로 전년대비 3.5%p 감소한 반면 외제차는 9.8%로 전년대비 2.0%p 증가함.
- 2011~2012년 기간 동안 상위5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국산차가 1.9%, 외제차가 25.2%를 기록하였음.¹⁾
 - 동기간 외제차 지급보험금은 약 6,541억 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18%를 차지하며, 외제차 평균수리비는 국산차보다 3배 이상 높음.

- 민병두 의원은 「생활 속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외제차수리비 폭리 근절법」법안²⁾ 발의를 할 예정임.³⁾

1) 민병두 의원 2013년 5월 6일자 보도자료(<http://www.badmin.net>).

2) 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것이며, 발의된 법안은 상기 개정안들임.

- 외제차 수리비 급증의 근본원인으로 부품의 공급독점, 부품정보의 비대칭성, 렌트카 업체와 정비 업체의 리베이트 관계 등을 지적함.
- 법안의 주요 내용은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시 대체부품 허용, 소비자에게 부품정보에 대한 세부내역 제공 의무화, 부분정비업(퀵샵)의 허위·과장 전적서 금지, 고장·하자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부여, 렌트카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임.

■ 무엇보다도 자동차 수리비 세부내역 공개, 외제차 부품 정보제공 의무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제차 수리비 및 부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가 수리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리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정보(구분, 수량, 단가, 부품제조회사, 일련번호) 등을 제공해야 함.
 - － 현행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의 표기사항은 작업내용, 부품(구분, 수량, 단가), 공임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부적인 수리내역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정비업자의 허위·과잉 수리를 초래할 여지가 있음.
- 또한 부품명, 일련번호, 제조사, 가격정보 등을 포함한 외제차 부품DB 제공을 의무화하여 수리비 산출 시 이를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음.
 -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에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의 제공 및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에 관련 자료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도록 절차, 방법, 제공대상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외제차 문제는 외제차 직영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 및 마진이 불투명하고 시장가격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국산차와 달리 가격정보 등이 폐쇄적인데 원인이 있음.

■ 향후 외제차 증가추세가 FTA에 의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 8%가 한·EU FTA에 의해 작년 7월 5.6%로 인하되었으며 2014년 7월 철폐될 예정이고,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 8%가 한·미 FTA에 의해 4% 인하되었으며 2016년 1월 철폐될 예정임.
- 특히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과 EU, 한국과 미국 간 관세 인하 협정은 EU 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예를 들어, 미국산 도요타 캠리 등)에 적용됨.

3) Ibid.

- 외제차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외제차 수리비 증가로 인한 지급보험금 증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kiri](#)